

## <세기의 대국> 조장희 박사 "이세돌 승리는 인간 뇌의 위대성 증명"

기사입력 2016/03/14 19:44 송고

"알파고는 인간 뇌와 전혀 달라...수퍼컴퓨터가 바둑 이기는 것 당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세계적 뇌과학자 조장희(80) 박사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에 대해 "인간의 뇌와 유사한 점이 전혀 없는, 성능 좋은 수퍼컴퓨터"라고 평했다.

조 박사는 14일 오후 성동구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를 바꾸는 뇌공학'을 주제로 마련된 강연에서 '인간의 뇌와 신경회로망'에 관해 학생 200여명에게 강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 미국 콜롬비아대학·캘리포니아대학 교수,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특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조 박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뇌과학자다.

그는 1975년 세계 최초로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를 개발했고,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워 뇌과학·의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조 박사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알파고-이세돌 대국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나. 나는 인간의 뇌가 참 대단하다고 또 한 번 감탄했다"고 운을 뗐다.

뇌공학 발전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강연을 마친 조 박사는 질의응답에서 '인간은 알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알파고는 인간과 비교가 불가능한 컴퓨터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박사는 "알파고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수많은 통계를 순식간에 정리하는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라면서 "알파고가 뇌처럼 '지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입증됐듯 바둑은 계산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인간보다 잘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꺾은 게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웃었다.

이어서 "경험을 통해 우러나오는 '직관'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면서 "이세돌은 수억 년 동안 진화한 인간의 뇌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영훈국제중·경기고·하나고 등 학교에서 온 중고생 100여명과 한양대학교 학부생 100여명이 참여했다.

국내 연구자 중 유일하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서 연구비를 수주한 한양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장동표 교수, 한양대 생체공학과 임창환 교수도 뇌공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14 19:4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